

집단간 갈등의 원인분석:  
1992년 로스앤젤레스폭동에서 나타난 한흑갈등의 사례연구

이 선 우

- I. 서론
- II. 이론의 개관
- III. 사례연구: 한흑갈등
- IV. 결론

I. 서론

미국의 인종<sup>1)</sup>문제의 심각성은 1992년의 로스앤젤레스 폭동을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났다. 다인종사회인 미국은 항상 인종갈등의 가능성을 안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인종갈등은 주로 백인과 흑인 또는 때로 백인과 아메리카 인디언, 중국인, 일본인 또는 유태인과 같은 다른 소수인종과의 갈등으로 주로 여겨졌다.<sup>2)</sup> 일반적으로 인종갈등은 다수인 백인이 흑인이나 다른 소수인종을 공격하는 형태를 띠었다.

- 1) 인종이라는 용어는 영어의 'race' 또는 'ethnicity'를 칭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race'는 신체적 특징을 칭하는 반면, 'ethnicity'는 문화적인 특성을 말한다. Bonacich는 'ethnicity'는 각 대륙의 'race'와 각 국가에서 온 'ethnicities'를 모두 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Bonacich, E., "A theory of ethnic antagonism: The split labor marke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7, 1978, pp. 547-559. 이 연구에서 인종이라는 용어는 민족이라는 용어와 거의 동일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국인과 흑인에 관련해서는 주로 '민족'을, 흑인과 백인에 관련해서는 주로 '인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2) 1877년에서 1914년까지 77개 도시에서 262회의 민족집단행동이 있었으며, 그 가운데 54.6%가 흑백관계의 집단행동이었고 15.6%가 중국인과 백인간의 집단행동이었다. Olzak, S., *The Dynamics of ethnic competition and conflict*,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2.

미국 내의 소수인종의 수와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은 1965년 이민법의 개정을 통해서였다. 이 개정 법은 민권운동, 외교정책 및 인력정책의 일환으로 통과되었다.<sup>3)</sup> 1960년대의 민권운동은 소수인종의 법적·정치적 지위를 크게 개선시켰고, 미국정부는 이에 따라 인종 차별적인 이민법을 개정할 수 밖에 없었다.

개정 법으로 인한 새로운 이민의 물결로 여러 소수인종이 근접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생기면서 새로운 형태의 인종갈등인 소수인종간의 갈등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유태인과 흑인 또는 흑인과 한국인간의 갈등에서 보여주듯이 최근에 소수인종간 인종갈등이 증가하는 새로운 현상을 보이고 있다.

1992년 L.A. 폭동은 남미계 배심원 한사람을 제외한 모든 백인 배심원이 로드니 킹 사건에 “무죄” 평결을 내림으로써 시작되었다. 폭동은 경찰의 체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과 사법제도가 흑인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한 항의로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폭동은 주류사회의 언론에 의해 한국인과 흑인간의 갈등으로 변질되었다.<sup>4)</sup> 한흑갈등은 TV의 전국뉴스를 통해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고 유명한 토론프로그램에서도 이 주제를 매우 심도 있게 다루었다.<sup>5)</sup>

인종 이론(racial theories)은 미국 사회에서 가장 일반적인 백인과 흑인의 갈등을 설명하기 위해 발달되어 왔다. 동화이론(assimilation theory)이나 문화다원론(cultural pluralism) 등의 이론 뿐 아니라 내부 식민지론(internal colonialism)과 계급이론들도 백인다수와 소수인종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발달되었다. 동화이론은 소수민족, 특히 아일랜드인, 이탈리아인과 같은 백인 가운데 소수민족이 다수를 차지하는 WASP<sup>6)</sup> 집단으로 동화되는 과정을 설명하려고 시도한 반면, 계급이론은

3) 1960년대 초, 미국은 소련과의 냉전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국내의 인종주의는 미국의 명성을 저해하는 것이었고, 결국 정치인들은 인종주의국가라는 불명예를 피하기 위해 개정법을 통과시켰다. 또 다른 중요한 개정법의 배경은 미국이 기술직 분야에서 숙련노동자의 부족함을 심하게 겪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의회는 전문직 근로자와 기술직 근로자의 이민으로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Light, I., and Bonacich, E., *Immigrant entrepreneurs: Koreans in Los Angeles 1965-1982*,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8.

4) 폭동이 끝난 후, 주류사회의 언론의 보도에 대한 몇 가지 불만이 나타났다. L.A. Times의 동양인 2세 기자인 J. H. Lee는 언론이 한흑갈등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백인에 의한 인종차별과 폭력의 역사는 무시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또한, L.A. 폭동이 한흑갈등으로 채색되었으나 실제로 흑인폭도 보다는 다른 소수민족폭도가 더 많았다고 주장되고 있다. RAND Corp.는 L.A. 폭동에서 체포된 피고의 51%가 남미계였고 36%만이 흑인이었다고 보고하면서, 흑인폭동이 아니라 소수민족의 폭동이었다고 밝히고 있다(L.A. Times, 1992. 6.19, p. B3).

5) ABC의 시사뉴스시간인 Nightline과 한밤 토론으로 가장 유명한 Oprah show에서 한흑갈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방영하였다.

6) White-Anglo-Saxon-Protestant의 약자로 백인이면서 앵글로색슨족이며 개신교신자인 집단으로 미국에 처음 건너왔던 집단이며, 현재도 미국의 주류를 이루는 집단이다.

흑인무산자계급과 백인자본가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지배집단과 피지배집단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내부 식민지론은 미국사회를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연결된 체계로 보고, 백인 자본가들이 유색인들의 노동을 착취하고 이윤을 취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론들은 다수와 소수인종의 인종관계 및 갈등을 설명하는데 기여하였으나, 소수인종들간의 갈등을 설명하는데는 실패하였다. 따라서, 권력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집단들간에 새로운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소수인종들간의 갈등을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틀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심리학적 이론, 경쟁이론, 중간자소수민족이론, 민족경제구역이론이 L.A. 지역의 한국인과 흑인의 갈등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하여 소수인종간의 갈등을 분석하기 위한 새로운 분석틀을 개발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이론들은 다수와 소수민족의 인종관계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중간자소수민족이론은 직접적으로 소수인종들간의 갈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들을 한쪽갈등에 적용되면서, 이 연구는 갈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찾고자 한다.

한 사회에서 인종간의 갈등 또는 서로 다른 집단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고, 보다 원만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부양할 수 있다면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것이다. 인종갈등 또는 집단갈등을 줄이는 일은 갈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이해함으로써 시작될 수 있다. “인종갈등의 원인과 유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인종갈등을 완화하려는 노력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sup>7)</sup>

## II. 이론의 개관

이 장에서는 미국의 인종갈등을 설명하는 여러 이론들 가운데 한쪽갈등을 분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지는 심리학적 이론, 경쟁이론, 중간자소수민족이론 및 민족경제구역이론을 개관하도록 할 것이다.

### 1. 심리학적 이론

#### 1) 편견, 스테레오타입과 차별

심리학적 이론은 편견, 스테레오타입과 차별이 인종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본다. 편견은 일부 특정집단의 구성원들에 대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정적

7) Horowitz, D. L., *Ethnic groups in conflict*,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 p. 564.

인 태도를 말한다. 한편, 스테레오타입은 편견의 인지적인 측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 집단에 대한 일반화되고 표준화된 신념이다.<sup>8)</sup> 사람들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단순화하고 일반화를 해야 할 필요를 빈번히 느끼게 된다. 스테레오타입은 이럴 때 사람들이 세상과 타인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문제는 스테레오타입이 부정확하거나 과장되어 있거나 변화되지 않으려고 할 때 일어난다.<sup>9)</sup> 스테레오타입은 언어와 정서를 통해 문화의 일부가 되고, 처음 스테레오타입을 만든 조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도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sup>10)</sup> 편견과 스테레오타입이 태도를 언급하는 것이라면, 차별은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와 관련되어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심리학적 이론은 편견과 차별을 개인의 특성과 성향으로 이해한다. 심리학적 이론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두 이론은 권위주의성격이론과 좌절-공격이론이다. Adorno는 편견과 차별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권위주의성격이론의 개념을 발달시켰다. 이 이론에 의하면, 권위주의적인 성격의 소유자들은 어려서 엄격하게 양육되었고 모든 소수인종들에게 편견을 갖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sup>11)</sup> 권위주의적인 사람들은 권위를 가진 사람, 즉 자신들보다 큰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순종하고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에게는 공격을 하는 경향이 있다.

또 다른 심리학적 이론인 좌절-공격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구가 좌절될 때 공격의 형태로 인종차별과 적대감을 나타낸다. 좌절을 느낀 사람들이 실제로 좌절하도록 만든 원인을 발견할 수 없을 때, 또는 좌절의 실제 원인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너무 강력할 때 대체 목표를 찾는다.<sup>12)</sup>

## 2) 심리학적이론의 적용

1882년에서 1930년 사이에 남부지역에서 일어났던 흑인에 대한 사형(私刑: lynching)을 설명하기 위해 좌절-공격이론을 이용할 수 있다.<sup>13)</sup> 이 시기에 이 지역의 경제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면화의 가격이 떨어지고 경제적 불황이 심할 때 사형이 더 빈번하게 행해졌다. 백인들은 경제적 불황에 대한 원인이 너무 복잡하고 모호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되자, 백인들은 흑인들을 경제적 불황의 원인으로 몰면서 사형을 가했다. 좌절-공격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최근의 예

8) Meyers, D. G., *Social psychology*,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1983.

9) Marger, M., *Race and ethnic relations: American and global perspectives*, 2nd ed.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Co., 1991.

10) Sherif, M., and Sherif, C. W., *Groups in Harmony and Tension: An integration of Studies on intergroup relations*, New York: Harper & Brothers, Publishers, 1953.

11) Meyers, 앞의 글, 1983.

12) Tidwell, B. J., "Racial discrimination and inequality," *Encyclopedia of Social Work*, 18th ed., 1987, pp. 448-455.

13) Meyers, 앞의 글, 1983.

로는 경제침체가 계속되면서 백인들이 공적부조 수혜자들과 빈곤한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자원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활이 어렵다고 비난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백인들은 경제침체로 생활수준이 떨어지면 복잡한 경제체제보다는 공적 부조수혜자나 이민자들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한쪽갈등도 편견과 차별을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흑인들과 한국인들은 서로에 대해서 편견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쪽갈등을 악화시킨다. 예를 들어, 흑인들은 “한국인 상인들이 거만하고 말을 함부로 하며 자신들을 도둑처럼 취급한다”고 불평한다.<sup>14)</sup> 반면에 한국인들은 일반적으로 흑인이 게으르고 위험하고 일하지 않으며 미개하다고 말한다.<sup>15)</sup> 더욱이, 좌절-공격이론은 흑인들이 백인의 인종차별에 대해 갖고 있는 좌절감을 한국인들에 대한 공격으로 옮겨 간다고 설명한다. 빈민지역의 흑인들은 백인들에 대해 좌절감을 느끼지만 백인들은 너무 멀리 있고 또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흑인들은 수가 작고 정치적 힘이 부족한 한국인상인들을 공격한다.

### 3) 비판

심리학적 이론에 대한 가장 중요한 비판은 편견의 결정요인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상황인 사회 문화적인 요인들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sup>16)</sup> 심리학적 이론은 특정 사회 또는 사회내의 특정 하위집단 내에서 동일한 편견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없으며, 편견이 사회내에서 갑자기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도 설명할 수 없다. 또한, 심리학적 이론은 여러 인종 가운데 특정한 소수인종이 편견과 차별의 대상, 희생양으로 선정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sup>17)</sup>

두 번째의 심리학적 이론에 대한 비판은 편견이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화이론에서는 개인들이 편견과 차별의 태도를 배웠고 사회화되었기 때문에 편견을 보이고 차별적 행동을 수행한다는 것이다.<sup>18)</sup> 개인의

14) Hutchinson, E. O., "Fighting the wrong enemy," *The Nation*, 1991, Nov. 4, p. 554.

15) Cheng, L., and Espiritu, Y., "Korean businesses in Black and Hispanic neighborhoods: A study of intergroup relations," *Sociological Perspectives*, 32(4), 1989, pp. 521-534.; Jo, M. H., "Korean merchants in the black community: prejudice among the victims of prejudice," *Ethnic and Racial Studies*, 15(3), 1992, pp. 395-411.; Lim, H., "Acceptance of American culture in Korea: Patterns of cultural contact and Koreans' perception of American culture," *Journal of Asiatic Studies*, 25, 1982, pp. 25-36.

16) Marger, M., *Race and ethnic relations: American and global perspectives*, 2nd ed.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Co., 1991.

17) Hill, R. B., "Intergroup relations," *Encyclopedia of Social Work*, 18th ed., 1987, pp. 944-957.; Meyers, 앞의 글, 1983.

18) Baron, R. A, and Byrne, D., *Social Psychology: Understanding human interaction*, 4th

성향에서 편견과 차별이 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편견과 차별을 가르치고, 그러한 행동에 대해 보상하고, 문화적인 규범으로 강요한다. 편견과 차별은 한 사회의 사회적 규범의 일부이다.<sup>19)</sup> 또한, 권력-갈등이론에서도 편견과 차별은 집단의 이해관계의 산물이며 자신의 이해를 보호하고 증대시키고자 사용된다고 주장한다.<sup>20)</sup> 이 이론에서는 집단간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인 경쟁을 강조하는데, 예를 들면 마이애미 지역에서 쿠바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발달하게 된 것은 많은 쿠바인들이 마이애미에 망명을 오면서 기존의 주민들이 쿠바인들과 직업, 주택 및 학교 등의 한정된 자원을 얻기 위해 경쟁을 하면서라는 것이다.<sup>21)</sup> 즉, 편견은 직접적인 경제적 경쟁과 집단간 갈등의 증후로서 편견이 나타나는 것이지 원인이 아니라는 비판을 받는다.

## 2. 경쟁이론

### 1) 경쟁의 원인으로서는 교류와 경제침체

경쟁이론은 들 이상의 인종집단이 직업, 주택, 결혼 상대자 등의 한정되어 있는 자원을 놓고 서로 경쟁할 때 긴장과 갈등이 일어난다고 본다.<sup>22)</sup> 자원을 위한 경쟁은 경제적 맥락 속에서 인종관계를 형성하고 적의를 촉진시키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sup>23)</sup>

경쟁은 교류와 경제침체에서 주로 발생한다. 첫째, 경쟁은 서로 다른 두 인종이 교류할 때 발생한다.<sup>24)</sup> 따라서, 이주와 인구집중과 같은 인구학적 요인들이 교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경쟁이론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본다. 인종간 교류는 소수민족이 국경을 넘어서 이주하거나, 소수민족이 자신들만의 분리된 노동시장 또는 주택시장에서 확대되어 다른 민족이 차지하고 있는 노동시장과 주택시장으로 확대할 때 증가한다.<sup>25)</sup> 또한, 소수민족은 교육정도가 증가하거나,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ed. Boston: Allyn and Bacon, 1984.

19) Tidwell, 앞의 글, 1987.; Marger, 앞의 글, 1991.

20) Bonacich, 앞의 글, 1972.; Cheng and Espiritu, 앞의 글, 1989.

21) Baron and Byrne, 앞의 글, 1984.

22) Olzak, S., "Causes of ethnic conflict and protest in urban America, 1877-1889," *Social Science Research*, 16(2), 1987, pp. 185-210.

23) Cheng and Espiritu, 앞의 글, 1985. Banton은 경쟁이론을 기초로 합리적선택이론을 발달시켰다. Banton, M., *Racial and ethnic compet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24) S. Olzak and J. Nagel (Eds.), *Competitive Ethnic Relations*, Orlando, FL: Academic Press, 1986.

25) Feagin, J. R., *Racial and Ethnic Relations*, 3r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89.; Olzak, S., "Causes of ethnic conflict and protest in urban America, 1877-1889." *Social Science Research*, 16(2), 1987, pp. 185-210.

로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때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증가하면서 분리된 저임금 직종에서 나오려고 한다. 이러한 시도는 다수집단과 소수민족의 교류를 증가시키고 다수 집단에 일종의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어서 갈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sup>26)</sup>

둘째, 기업이 직원을 감원하고 경기가 좋지 않은 경제적 침체기 또는 쇠퇴기에 인종간의 경쟁이 심화된다(Olzak, 1986). 경제침체가 되면서 임금이 낮은 소수민족이 유입되면 그들과 기존의 집단 사이에 갈등이 증가한다. 기존집단의 구성원들은 소수민족이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여 자신들의 직업안정성과 임금수준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본다.<sup>27)</sup>

따라서, 경쟁이론에서는 이민 또는 이주의 증가, 하층집단의 임금상승, 경제적 침체 및 실업을 등이 인종갈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 2) 경쟁이론의 적용

19세기에서 20세기 중반까지 지속된 흑백분리의 체제를 설명하기 위해 경쟁이론을 적용시킬 수 있다. 남북전쟁으로 노예제도가 폐지된 후, 백인들은 흑인들과 자원에 대한 경쟁으로 자신들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에 위협이 되자 경쟁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흑인과 백인의 분리체제를 이용했다고 본다.<sup>28)</sup> 또한, 마이애미와 L.A.에서 발생한 남미계 주민들과 흑인들의 갈등도 경쟁이론으로 볼 수 있으며, 일부에서는 1992년의 L.A. 폭동도 두 집단이 경제적 자원을 놓고 벌인 경쟁으로 보기도 한다.<sup>29)</sup> 예를 들어, 남부 L.A. 지역은 전통적으로 흑인거주지역이었으나 현재는 남미계 주민들이 높은 출생률과 대규모 이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 이 지역의 경제적 침체<sup>30)</sup>로 인해 흑인들과 남미계 주민들 사이에 경쟁이 심화되고 긴장과 갈등이 증가하였다.<sup>31)</sup>

한흑갈등도 경제적 경쟁으로 설명될 수 있다. 대부분의 한흑갈등은 한국인 소유상점과 경제적인 쟁점을 둘러싸고 이루어지며 경쟁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sup>32)</sup> 경쟁이론에 따르면, 한국인과 흑인 사이의 교류가 증가하면서 한흑간의 긴장과 적대감이 심화되었다.

26) Olzak, 앞의 글, 1987.

27) Olzak, 앞의 글, 1987.

28) Marger, 앞의 글, 1991.

29) Miles, J., "Blacks vs. Browns." *The Atlantic*, 270(4), 1992, pp 41-68.

30) L.A.에서는 1978년에서 1989년 사이에 200,000 이상의 일자리가 감소하였고 그 대부분은 남부 L.A.에 집중되어 있었다(N.Y. Times, 1992. 8. 30, 20L).

31) N.Y. Times, 1992. 8. 30, 20L; L.A. Times, 1992. 11. 20, B4.

32) L.A. Times, 1992. 5. 6, B8.

## 3) 비판

경쟁이론은 다음과 같은 비판을 받고 있다. 첫째, 경쟁이론에서는 여러 다양한 이민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이민자들이 같다고 보지만, 실제로 이민자들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베트남, 라오스 등의 남동 아시아의 피난민들이 한국, 일본, 대만 등의 동아시아의 이민자들과 같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전자는 농촌 출신이어서 도시의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 기존의 주민들과 경쟁하기 어려운 반면, 후자는 산업도시출신으로 미국의 도시 생활에 유리한 기술들을 갖고 있어서 기존의 주민들과 경쟁을 할 가능성이 더 높고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도 더 높다.

둘째, 경쟁이론은 교류가 언제나 집단간 적대감과 갈등으로 이끈다고 가정하지만, 많은 심리학자들은 특정한 조건하에서는<sup>33)</sup> 상이한 집단의 구성원들 사이의 교류가 집단간의 편견과 적대감을 줄이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sup>34)</sup> 따라서, 새로운 이민자의 수가 항상 인종갈등의 강도와 빈도와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셋째, 경쟁이론은 일부 인종간 경쟁을 심화시키는 한 요인으로 경제 상황을 언급하고 있으나 인구학적 요인에 초점을 두어 경제적, 구조적 요인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경쟁이론은 불평등, 권력, 착취 또는 차별을 인종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보지 않는다.<sup>35)</sup> 또한 경쟁이론은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서 직업시장과 주택시장을 자유경쟁시장으로 가정하지만 실제로는 몇몇 대기업과 정부의 개입으로 심하게 왜곡된 시장이어서 경쟁이론의 기본적인 가정부터 의심을 받는다. 또한, 경쟁이론은 L.A.의 흑인들은 한국인들에 대해 적대감을 보이는 반면, 백인과 남미계 주민들은 적대감을 보이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경쟁이론하에서는 한국인들은 흑인들 뿐 아니라 백인, 남미계 주민들과의 경쟁을 심화시킨다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Chang은 한국인 상인들과 흑인주민들이 동일한 자원 또는 특권을 위해 경쟁하고 있는 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한흑갈등에 경쟁이론을 적용시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sup>36)</sup> 한흑갈등은 백인이 우세한 인종갈등과 달리 명확히 우세집단이 없다는 면에서 독특한 면을 갖고 있다. 한국인들은 경제자원의 면에서 더 나은 상황에 있으며, 반면 흑인은 더 많은 정치력을 갖고 있다.

33) 집단간의 교류가 편견과 갈등을 감소시키려면, 교류는 동등한 사회적 또는 경제적 지위라는 조건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공통의 목표를 갖고 협력적인 조건하에서 상대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Baron and Byrne, 1984).

34) Baron and Byrne, 앞의 글, 1984.

35) Feagin, J. R., *Racial and Ethnic Relations*, 3r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89.

36) Chang, 앞의 글, 1991.



### 3. 중간자 소수민족이론

#### 1) 중간자로서 경제적 역할과 민족연대감

Bonacich는 중간자이론을 발달시켜서 계층사회에서 중간위치를 점하는 소수집단을 탐구하였다.<sup>37)</sup> 이들의 특성은 그들이 중간적인 경제적 역할, 엘리트와 대중사이의 중간자로서, 생산자와 소비자사이에 위치한 소규모사업자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중간자 소수민족이론에 따르면, 특정 민족은 체류자(sojourners)이기 때문에 중간자소수민족이 된다.<sup>38)</sup> 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 영원히 안주하기보다는 출신국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체류자로서 이들은 첫째, 특정 직업에 몰려 있으며, 둘째 절약을 중시하고, 셋째 연대감이 높다는 특성을 갖는다. 중간자 집단은 상업, 무역, 고리대금업 또는 전문직처럼 유동성이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는데, 중간자 집단이 갖는 특징의 하나이다.<sup>39)</sup> 중간자가 이러한 직종을 선택하는 이유는 출신국가로 돌아가고자 할 때 쉽게 이러한 직종을 그만둘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쉽게 그만둘 수 없는 산업이나 농업에 대한 투자나 참여는 저조하게 된다. 이들이 자영업에 종사하거나 자영업을 준비하면서 같은 민족이 운영하는 기업에서 일하는 경향도 이들이 갖는 체류의 성향과 관련이 있다.

체류는 절약에 대한 경향을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 장시간 노동을 한다든지 저축을 강조하는 것이 그 예이다. 무역과 상업과 같은 중간자기업은 노동집약적이어서 절약하고 열심히 일하여 노동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Bonacich and Modell은 이러한 특성과 동기로 일본인들이 소규모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었다고 본다.<sup>40)</sup> 이러한 특성으로 중간자기업들은 주류 사회의 기업들과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었다.

체류는 또한 중간자소수민족의 내적 연대감을 증대시킨다. 이들은 강력한 가족 연대감을 가지며, 다른 집단과의 결혼을 회피하고, 자신들의 거주지역 및 상업지역을 유지하고, 전통을 후손들에게 전달하고자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학교를 설립

37) Bonacich, E., "A theory of middleman minorit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8, 1973, pp. 583-594.

38) 모든 체류자들이 사업가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체류(sojourning)가 중간자집단을 형성하는 충분조건은 아니다. 중간자소수집단이론에서는 체류자가 소규모사업에 종사하게 되는데 출신국가의 문화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Bonacich, 1973). 체류자(Sojourners)는 원래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외부의 침략을 받고 외국으로 끌려가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민족을 칭하는 것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39) Bonacich, 앞의 글, 1973.

40) Bonacich, E., and Modell, J., *The economic basis of ethnic solidarity: Small business in the Japanese American community*.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0.

하고, 독특한 문화를 유지한다. 그리고, 중간자들은 자신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제외하고는 지역의 정치에 참여를 피한다.<sup>41)</sup>

중간자집단은 기업을 운영하면서 민족연대감에 바탕을 둔 민족자원을 이용한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대가족제도, 공동신용체계, 동족조직, 저임금의 동족노동력 및 민족의 특성을 보이는 가부장주의 등이다.<sup>42)</sup> 이러한 자원으로 중간자집단의 기업은 다른 집단들보다 비용을 덜 들이고 운영할 수 있다.

중간자 소수민족은 심한 적대감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유명하다. 예를 들어, 생산수단을 탈취 당한다거나, 폭동과 배척의 대상이 되거나, 집단농장으로 이주를 당하거나 심지어는 살해되는 등의 박해를 많이 당한다.<sup>43)</sup> 중간자소수민족이론에 따르면, 중간자는 첫째, 중간자로서의 경제적인 역할, 둘째 민족연대감으로 적대감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중간자소수민족과 다수집단이 경제적인 역할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갈등은 소비자, 기업 및 노동에서 일어난다.<sup>44)</sup> 첫째, 소규모사업자와 고객사이의 이해관계의 갈등은 판매자와 구매자로서 다른 이해를 갖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중간자소수민족은 지배엘리트의 산물을 대중에게 분배하고 피지배집단에 대해 상점주인의 역할을 하면서, 엘리트들에게 이윤을 전달한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대중의 좌절감과 적대감을 지배엘리트에서 다른 곳, 즉 자신에게로 돌리는 완충역할을 한다. 한편, 대중인 고객들은 상인들에게 속아서 쓸데없이 비싼 가격을 지불하지 않을까 걱정한다.

둘째, 경제적 갈등은 중간자사업체가 기존집단의 기업들과 경쟁할 때 일어난다. 중간자사업체는 경쟁력이 높고 효율적이어서 기존집단의 기업들에게 위협이 된다. 기존집단의 기업주들은 중간자들이 상품의 가격을 인하하고 자신들을 폐업하도록 몰아낸다고 불평하기도 한다.

셋째, 중간자소수민족은 값싸고 충성스러운 노동력을 생산함으로써 기존집단의 노동세력과 갈등을 일으킨다.<sup>45)</sup> 중간자 집단의 고용주들은 가부장적이고, 근로자들은 낮은 임금에도 장시간 노동할 의사를 갖고 있다. 기존집단의 노동세력은 값싸고 충성스러운 중간자 집단의 노동력이 대거 유입되어 기존의 기업-노동의 관계를 위협하고 기존사회의 노동자의 생활수준 마저도 저해할 것을 우려한다.

중간자집단이 행하는 경제적인 역할로 중간자소수민족에 대한 적대감이 증가

41) Bonacich, 앞의 글, 1973; Bonacich and Modell, 앞의 글, 1980.

42) Chang, 앞의 글, 1990; Bonacich, 앞의 글, 1973.

43) Bonacich, 앞의 글, 1973.

44) Bonacich, 앞의 글, 1973.

45) 이중노동시장이론(The split labor market theory)은 고임금을 받는 민족과 저임금을 받는 민족간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노동시장에서의 갈등에 초점을 둔다(Bonacich, 1972).

하면서, 중간자집단의 민족 연대감은 더욱 강해진다. 이러한 연대감은 다시 기존사회로부터 더 큰 적대감을 받게 하는 원인이 된다.

중간자집단과 기존주민들의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은 중간자의 민족연대감이다. 즉, 그들은 폐쇄적이고 동화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는다. 중간자는 기존사회에서 분리된 특징있는 지역사회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기존사회의 구성원들은 중간자들이 자신들과는 떨어져서, 자신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자신들과의 차이를 유지하려 한다고 의심한다.<sup>46)</sup> 체류자로서 중간자소수민족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국가에 충성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출신본국에 대한 충성심을 갖고 있다고 비난받기도 한다. 그들은 출신본국에 가족들을 남겨두고 때로 그들을 방문하고 송금을 함으로써 출신본국에 대한 충성심은 분명해진다.<sup>47)</sup> 그들은 체류하는 국가의 자원을 고갈시킨다고 비난을 받기도 한다. 기존주민들은 중간자소수민족이 자신들의 환경이나 자원을 고려하지 않으며, 출신본국으로 돌아갈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직접 생산적인 산업에 종사하지 않는다. 중간자 집단은 지역사회의 산업에 기여하지 않기 때문에 기생하는 것처럼 보인다.

### 2) 중간자소수민족이론의 적용

중간자소수민족이론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및 미국에서 여러 민족들에게 적용되어 왔다. 예를 들어, 유럽과 미국의 유대인, 남동 아시아의 중국인, 동아프리카의 동양인, 미국에서 일본인과 그리스인들에게 이 이론을 적용시켰다.

미국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중간자집단은 유대인과 일본인이다. 이들은 경제적 역할로 중간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무역과 서비스영역에 체류자로서 밀집해왔다. 특히, 유대인의 시온주의는 체류자의 이념을 표현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중간자소수민족이론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가장 최근의 중간자소수민족으로서 체류자이기 때문에 무역과 서비스와 같은 소규모사업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본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돌아갈 준비를 한다. 한국인들이 미국의 정치보다 한국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사실은 중간자소수민족이 출신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더욱 강화시킨다. 한국인의 체류자로서의 이미지는 외국인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화시켜서, 흑인들은 한국인 상점에 불매운동을 벌이면서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구호를 자주 사용한다.

### 3) 비판

중간자소수민족이론에 대한 대부분의 비판은 중간자의 체류에 대한 성향에 대한 비판이다. 중간자소수민족이론은 특정한 민족이 중간자가 되고자 스스로 선택

46) Bonacich, 앞의 글, 1973; Bonacich and Modell, 앞의 글, 1980.

47) Bonacich, 앞의 글, 1973.

하고 기존사회의 적대감의 대상이 된다고 가정한다. 그들은 선택에 의해 체류자가 되고 중간자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간자들은 체류자이어서가 아니라 다수의 배척에 의해 소규모사업주 또는 기업가가 된다고 주장한다.<sup>48)</sup> Bonacich and Modell도 체류 자체를 그 집단이 인종차별을 당하는데 대한 일종의 대응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한다.<sup>49)</sup>

Cherry는 중간자소수민족이 체류자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많은 사업을 한다는 주장에 의문을 표하면서, Bonacich가 고전적인 중간자소수민족이라고 말하는 중국인과 유대인은 체류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본이 적어서 유동성이 높은 사업에 투자를 한다고 보았다.<sup>50)</sup> 또한 중간자들은 기존 사회로부터 적대감을 받고 경제적으로 박탈된 상태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높은 사업과 몇몇 직종에 밀집하도록 선택을 강요받는다라는 것이다. 중간자들은 유동성이 있는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비우호적인 사업환경으로 인한 위협을 감소시켜야 한다.

또 다른 비판은 많은 중간자집단이 생산적인 사업에도 종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유대인들은 상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일반시장을 위한 직접 생산에도 참여하였다. 더욱이, 많은 2세 유대인들이 산업과 전문직으로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더 많은 유대인들이 주류사회로 진출하게 되었다.<sup>51)</sup> 마이애미의 쿠바인들은 또 다른 예로, 쿠바인들이 상업, 재정을 비롯하여 일반인들을 위한 산업, 건축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중간자소수민족이 아니라고 하였다.<sup>52)</sup>

중간자소수민족이론은 한국인들의 체류성향으로 민족연대감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한국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그들은 한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지속될 다른 한국인들과의 관계를 기존사회의 구성원들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심적으로만 한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할 뿐, 실제로는 미국에 머무를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국정치에 대한 관심이 큰 것도 한국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미국정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더구나 자신들이 미국정치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한국정치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한국인들의 연대감은 그다지 높지도 않아서, 세탁소, 식당, 주류소매상 그리고 최근에 노래방과 같은 여러 사업에서 한국인들이 서로 경쟁을 한다. 그 결과, 한국인들 사이에 치열한 경쟁으로 폐업하는 사례가 증진되

48) Wong, E., "Asian American middleman minority theory: The framework of an American myth." *Journal of Ethnic Studies*, 13, 1985, pp. 51-87.

49) Bonacich and Modell, 앞의 글, 1980.

50) Cherry, 앞의 글, 1990.

51) Portes, A., and Bach, R. L., *Latin journey: Cuban and Mexic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

52) Portes and Bach, 앞의 글, 1985.

## 집단간 갈등의 원인분석

고 있다. 더욱이, 많은 한국인 상인들은 최근에 채소가게와 식당에서 값싼 노동력의 이점을 취하기 위해 한국인들을 고용하는 대신 남미계 주민들을 고용하고 있다.<sup>53)</sup> 따라서, 한국인의 민족연대감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민족연대감이 한족갈등의 요인이 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중간자소수민족이론의 또 다른 비판은 백인 엘리트와 흑인 대중이라는 체계를 통해 인종간의 관계에 인종차별의 쟁점을 도입했지만, 이 이론은 인종차별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지 않으며 중간자집단의 경제적 역할에서 근본적인 갈등의 원인을 찾는다.

중간자소수민족이론을 동양인들에게 적용시키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Wong은 역사적으로 일본인들과 중국인들이 주로 소규모사업에 종사했지만 부유한 백인과 빈곤한 흑인사이에 실제로 자리를 잡은 중간자집단 사업가였던 적은 거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오히려 이 이론이 동양인과 흑인들간의 격심한 갈등을 야기했다고 비판한다.<sup>54)</sup>

이 이론은 중간자소수민족에 대한 적대감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결정론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은 엘리트와 대중간의 중간자로서 완충자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족갈등은 불가피한 것이다. 흑인들은 한국인 사업가들을 백인 자본가들을 대신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한국인 중간자들에게 적대감을 표시한다.<sup>55)</sup> 따라서, 중간자들이 현재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는 한 집단간 갈등의 변화의 여지가 전혀 없게 된다. 중간자 소수민족이론은 “한국인들이 흑인지역에서 나와서 현재의 직업을 완전히 떠나지 않는 한, 한족갈등에 어떠한 해결책도 없다는 상당히 비판적인 견해를 제공한다.”<sup>56)</sup>

중간자소수민족이론은 또한 왜 흑인들은 한국인들에게 적대감을 표시하지만, 남미계인들은 적대감을 표시하지 않는 지 설명할 수 없다는 약점을 갖고 있다.<sup>57)</sup>

53) 한국인 상인들이 민족자원으로서 동족의 노동력에 계속 의존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상인은 민족연대감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윤을 중시한다.

54) Wong, 앞의 글, 1985.

55) 일부에서는 1992년 L.A. 폭동을 인종의 문제가 아닌 순수한 계급의 문제로 본다 (Paterno, 1992). 욕심많은 자본가들에게 지친 무산자계급이 자본가계급과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투쟁으로 자본가를 공격하였다는 것이다. 우연히 무산자계급은 흑인이었고 자본가는 한국인이었다. 불에 타고, 약탈당하고, 약탈자들에게 총을 쏜 상점의 주인들은 우연히도 한국인들이었다.

56) Chang, E. T., “New urban crisis: Intra-third world conflict.” in S. Hune et al. (Eds.) *Asian Americans: Comparative and global perspectives*, 1991, p. 169.

57) Cheng and Espiritu(1989)는 한국인과 남미계인들의 갈등이 왜 덜 심각한가 설명하고자 하였다. 한국인의 85.9%, 남미인의 43.1%가 이민을 왔다는 사실이 두 집단간의 갈등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데 기여했다. 남미계인들은 한국인들과 미국에서 성공하려는 꿈을 공유하기 때문에 불공정한 약탈자라기 보다는 공정한 경쟁자로서 한국인을 보게 된다. 더욱이, 한국인 상점들은 남미계상점들과 경쟁하기 위해 남미

이 이론이 맞다면, 한국인들의 경제적인 역할이 백인 엘리트와 흑인 및 남미계 대중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흑인 뿐 아니라 남미계 주민들도 중간자로서 한국인들에게 적대감을 표시하여야만 하기 때문이다.

#### 4. 민족경제구역 이론(Ethnic Enclave Theory)

##### 1) 이민자의 경제구역

대부분의 이민자 소수민족들은 소규모의 민족지역을 형성하는 반면, 일부 이민자들은 민족경제구역을 형성하는 특성을 보인다.<sup>58)</sup> 민족경제구역은 이민자들이 동족 뿐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기업을 조직하기 위해 공간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독특한 경제구조를 말한다. 민족경제구역에서는 심도 있는 노동의 분화, 특히 기업가 계급의 발달이 기본적인데다.<sup>59)</sup> 민족성원들은 경제구역에서 동일한 민족기관과 단체에 참여한다. 그들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며 의사소통을 위한 밀집된 상호작용망을 형성하고 정보를 교환한다. 그들은 민족구성원들을 사회화시키며 동족결혼을 유지한다.<sup>60)</sup>

민족경제구역은 생산적 활동과 문화적 특징이라는 두 가지 독특한 경계로 구성된다. 전자는 직업과 산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중간자소수민족이론의 경제적 역할과 관련되어 있다. 후자는 언어, 국적 및 행동적 특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중간자소수민족이론의 민족연대감과 관련되어 있다. 민족경제구역은 민족의 정체감을 강화시키고 기존집단과 차이를 확대한다.

민족경제구역에서 사업은 전형적으로 작은 규모로 출발하여 거의 동족의 고객들만 상대한다. 후에 사업을 더 큰 시장으로 확대하고자 하면, 다른 민족의 기업들과 경쟁하게 되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여야 한다. 따라서, 민족연대감은 근로자의 노동조합결성을 막으면서 가장 효과적인 민족 자원으로서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경제구역에 제공한다.<sup>61)</sup> 고용주들은 값싸고 충성스러운 노동력을

---

계고객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팔고 더 잘 대해주기 때문에, 한국인과 남미계인들간의 인종간장은 상대적으로 낮다. 남미계인들이 동일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소규모사업을 소유하고 운영한다는 사실도 인종의 적대감을 줄이게 한다. 또한, Chang(1990)은 로스앤젤레스의 재산업화로 남미계인들이 할 수 있는 저임금 일자리가 증가하여 흑인지역에 비해 남미계지역에서 한국인에 대한 적대감이 적다

58) 민족지역(ethnic neighborhoods)은 사회적 지지기능을 수행하지만, 민족경제구역(ethnic enclaves)와는 달리 노동과 사업가계급의 광범위한 분화가 덜 되어 있다 (Portes and Bach, 1985).

59) Portes and Bach, 앞의 글, 1985.

60) Portes, A., and Manning, R. D., "The immigrant enclave: Theory and empirical examples." in S. Olzak and J. Nagel (Eds.), *Competitive Ethnic Relations*. Orlando, FL: Academic Press, 1986.

## 집단지 갈등의 원인분석

공급받는 대신, 근로자들을 자신들의 가족이나 친척처럼 대한다. 고용주들은 고용인들이 직장에서의 훈련을 통해 승진할 수 있도록 돕고, 고용인들이 자신들의 사업을 시작할 때 도움을 준다. 고용인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아들인다. 더욱이, 민족연대감은 새로운 이민자들이 계속 경제구역으로 끌어들이어서 새로운 소비자를 시장에 제공한다. 뿐 만 아니라, 민족연대감은 공동저금과 공동신용체계를 통해 자본을 축적하는데 효과적이다.

Portes and Manning은 민족경제구역의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한다.<sup>62)</sup> 첫째, 본국에서 획득한 사업경험을 가진 이민자들이 상당히 존재할 것을 필요로 한다. 둘째, 이용 가능한 자본이 있어야 한다. 셋째, 이용 가능한 노동력이 있어야 한다. 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첫 번째 조건이다. 본국에서 기업의 전통은 민족경제구역을 발달시키는데 필수적이다. 민족경제구역은 본국에서 구매하고 판매한 경험을 가진 기업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상당 수 필요로 한다.

중간자소수민족이론에서처럼 민족경제구역이론에서도 경제적 문제와 민족연대감은 민족간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인들이다.<sup>63)</sup> 민족경제구역에서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경쟁력을 갖게 되면, 기존의 사회에서 적대감을 일으키게 된다. 그들의 경제적 성공 이외에도, 일부 민족집단은 폐쇄적이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주위 집단의 적대감을 야기한다.<sup>64)</sup> 강력한 경제구역이 있는 이민자들은 다른 민족집단들과 경쟁을 할 가능성이 더 높고 공동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더 많다.<sup>65)</sup> 더욱이, 민족경제구역에서 경제적으로 성공을 이룬 구성원들을 경제구역 밖

61) Portes and Manning, 앞의 글, 1986.

62) Portes and Manning, 앞의 글, 1986.

63) 민족경제구역이론과 중간자소수민족이론에는 몇 가지 차이가 있다(Portes and Manning, 1986). 첫째, 경제구역의 기업들은 농업, 경공업, 건축 등 비교적 규모가 큰 생산부문인 반면, 중간자소수민족들은 엘리트와 대중간의 상업적·재정적 거래에 밀집해 있다. 둘째, 경제구역의 사업은 기존 사회의 기업들과 직접적인 경쟁상태에 있는 반면, 중간자소수민족들은 지배계급의 사회의 지역의 사업가들이 소수민족들의 빈민지역에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경멸하거나 두려워하기 때문에 채우기 원하지 않는 경제적 공간을 보충한다. Portes and Manning(1986)은 유대인, 일본인, 한국인 또는 쿠바인의 사업과 같은 중간자소수민족의 지역사회는 주로 이민자에 의해 자체로 생성되었다. 이러한 소수민족들의 활동은 지배엘리트의 분명한 명령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독립된 것이다. 더욱이, 중간자소수민족이론은 이민자들이 주류사회의 사업체들과 직접적인 경쟁을 피하기 위해 경제적 공간을 찾았으며, 소수민족의 대중을 상대로 사업을 운영하는 이득을 얻었다는 잘못된 인식을 구성해왔다. 따라서, 이들 이민자들이 중간자소수민족이라고 잘못 주장되어 왔다는 것이다. 셋째, 민족경제구역은 밀집되어 있고 공간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반면, 중간자소수민족들은 교역과 서비스에 종사하기 때문에 대중 안에 퍼져 있어야만 한다. 그들이 특정한 제한된 지역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사업체를 대중고객들에게 가까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Portes and Manning, 1986).

64) Portes and Manning, 앞의 글, 1986.

의 일반사회로 진출하도록 만든다. 그렇게 되면, 경제구역의 구성원들이 기존 사회로 이동하면서 민족 경쟁과 갈등은 증가한다.

### 2) 민족경제구역의 적용

뉴욕 맨하탄의 유태인, 서부 지역의 일본인, 로스앤젤레스의 한국인, 그리고 마이애미의 쿠바인들은 민족경제구역을 구성한 좋은 예들이다. 그들은 경제적 성공과 민족연대감으로 자신들의 경제구역을 발달시켰다. 사업경험이 있는 이민자들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마이애미의 쿠바인들 가운데 많은 수가 쿠바에 있을 때 사업경험을 갖고 있었다.

L.A.의 한국인들도 두드러진 민족경제구역을 발달시킨 것으로 보인다. 민족경제구역이론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경제구역을 발달시키면서 기존의 주민들과 차이를 확대시켰다. 그들은 여러 소규모사업에 집중되어 있고, 동일한 언어를 공유하며 국적도 한국국적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L.A.의 코리아타운(Korea town)과 같은 강력한 민족경제구역은 민족간 경쟁의 강도를 높이는 경향이 있다.

### 3) 비판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민족경제구역이론은 자신들의 경제구역을 가진 민족집단의 관계에만 한정되어 설명하고 있다. 이 이론 하에서는 왜 일부 민족경제구역은 다른 경제구역보다 기존 사회와 약한 갈등을 보이는 지 설명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중국인들은 가장 발달된 민족경제구역을 갖고 있는 민족집단의 하나이지만 한국인이나 쿠바인 들보다 흑인들과 약한 갈등을 보인다.

한국이민들은 민족경제구역의 필수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인지역사회는 이용 가능한 자본과 노동력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인들은 한국으로부터 불법적으로 현금을 가져왔거나<sup>65)</sup> 저금이나 계를 통해서 사업을 시작할 자금을 모았다. 한인사회는 가족과 최근의 이민으로부터 노동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Portes and Manning(1986)이 강조한 가장 중요한 조건인 본국에서 사업경험이 있는 이민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족경제구역의 전형적인 예로는 부족하다. Bonacich, Light, and Wong(1977)은 대부분의 한국인 기업가들이 미국으로 오기 전에 사업경험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다.<sup>67)</sup>

65) Olzak, 앞의 글, 1986.

66) 당시 한국의 법은 이민을 갈 때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을 가지고 나갈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한국정부는 경제발달을 위한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고자 노력했었다. 1992년에 이민 한사람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금액의 최고 한도는 20,000달러였다. 따라서, 5인 가족이 미국으로 이주한다면, 그들이 미국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최대금액은 100,000달러였다. Chang(1990)과 I. Kim(1981)은 다수의 한국인 사업가들이 법적으로 허용된 금액보다 많은 현금을 들여왔다고 주장한다.

67) Bonacich, E., Light, I., Wong, C. C., "Koreans in Business." *Society*, 14(6), 1977, pp.



### 5. 민족관계의 통합분석틀

지금까지 검토한 네 이론들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장·단점을 갖고 있다. 심리학적 이론들은 편견에서 사회적 요인들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집단간 갈등에서 편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편견은 사회적인 요인 또는 개인적인 요인에서 올 수 있다. 그러나, 심리학적 이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편견은 궁극적으로 개인들이 나타내는 심리학적 현상인 것이다.

경쟁이론은 교류와 경제적 침체가 집단간의 경쟁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초점을 둔다. 심리학적 이론은 교류가 일어나는 상황에 따라 교류가 있으면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는 반면, 경쟁이론은 교류가 있으면 적대감과 갈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중간자소수민족이론과 민족경제구역이론은 특정한 집단이 차지하는 경제적 위치와 경제적 성공, 민족연대감이 긴장을 야기시키고 적대감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론들이 한흑갈등을 설명하는데 여러 장점이 있지만, 최대 단점은 인종차별의 역할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흑갈등은 백인의 모든 소수민족에 대한 인종차별의 미국 역사안에서 일어났다. 흑인들이 갑자기 한국인들에 대한 분노를 폭발시킨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 대한 계속적이고 집요한 차별에 대해 좌절감을 느끼고 분노했던 것이다. 따라서, 한흑갈등을 연구하면서 백인들의 인종차별을 고려해야만 한다.

궁극적으로 네 이론은 문화와 경제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요약될 수 있다. 심리학적 이론, 중간자소수민족이론 및 민족경제구역이론은 문화와 언어의 차이로 편견이 만들어지고 갈등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한다. 경쟁이론, 중간자소수민족이론 및 민족경제구역이론은 경제적 요인들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민족간 갈등은 근본적으로 경제적 이해의 차이에서, 그리고 생활하고 생각하는 방법의 차이에서 일어난다. 네 이론과 한흑갈등이 발생한 역사적 측면을 고려할 때, 결국 우리는 역사, 문화, 경제의 세차원이 있는 분석틀을 갖게 된다.

이 연구는 한흑갈등이 흑인에 대한 백인의 인종차별과 흑인-백인 갈등의 오랜 역사에서 결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흑백갈등은 경제적인 요인과 문화적인 요인으로 한흑갈등이 되었다. 경쟁이론, 중간자소수민족이론 및 민족경제구역이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제적 이해관계가 다른 두 집단 사이에서 긴장과 적대감이 심화되어 왔다. 문화적 차이에서 나온 편견은 두 집단 사이의 적대감과 갈등을 악화시켰다.

### III. 사례연구: 한흑갈등

#### 1. 한국인들과 흑인간의 긴장 심화

한흑갈등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90년 뉴욕의 부르클린에서 16개월이나 지속되었던 불매운동 때문이었다. 흑인들은 두 한국인소유의 채소가게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였다. 이 사건은 여러 민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어서 민족간 갈등이 주요 쟁점이며 미국 최대 도시이고 세계적인 도시인 뉴욕에서 벌어져서 큰 주목을 받았고, 한흑관계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한흑갈등을 심화시킨 또 다른 사건은 1991년 L.A.에서 한국인 상점주인이 15살의 흑인소녀를 사살한 사건이었다. 상점주인은 살인으로 기소되었으나, 흑인소녀와 약간의 몸싸움을 했었다는 정황을 참작하여<sup>68)</sup>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한인상점주인이 살인에 대해 전혀 수감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L.A. 지역의 흑인들을 분노했다. 흑인주민들이 이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때, 1992년 L.A. 폭동이 일어났다.

1992년 L.A. 폭동은 로드니 킹 사건에 대해 “무죄” 평결이 나면서 시작되었다. 이 사건은 로드니 킹이라는 흑인운전자를 체포하면서 구타한 경찰관들을 기소한 사건으로, 이 재판은 경찰과 소수민족들간의 적대감과 불신의 정도를 보여 주었다. 배심원들이 백인경찰들에 대한 평결을 밝혔을 때, 성난 흑인들과 다른 소수민족 시위자들은 격렬한 시위를 벌였고 난폭해졌다. 시위자들은 방화를 하고 L.A. 지역의 수천에 이르는 상점을 약탈했다.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은 남부 L.A.와 코리아타운지역으로, 흑인 폭도들은 주로 흑인거주지역인 남부 L.A. 지역에 위치한 2,300여개가 넘는 한인소유상점을 파괴하고 공격하였다. 흑인소녀살해사건으로 많은 흑인주민들은 한국인들에 대해 적대적이 되었다고 보인다.

#### 2. 한흑갈등의 차원

한흑갈등은 역사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인 측면에 대하여, 본 연구는 백인이 흑인을 차별한 인종차별의 역사에 초점을 둔다. 경제적인 측면에 대하여, 한국인과 흑인의 경제적 이해관계의 차이가 강조될 것이다. 문화적 측면에 대하여, 본 연구는 두 집단의 문화적 차이에서 온 편견이 어떻게 두 집단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지 탐구할 것이다.

68) 한국인 여주인은 총을 쏘기 전에 흑인소녀에 의해 공격을 받았다. Hu(1992)는 여주인이 흑인소녀가 위협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흑인소녀에게 폭력적으로 반응했다고 주장한다. 남부 L.A.지역의 한국인 상인들은 1991년 250명 가운데 1명이 살해될 정도로 위협부담이 컸다.

### 1) 인종차별: 역사와 효과

많은 흑인 지도자들은 로드니 킹 사건의 평결과 L.A. 폭동을 백인 인종주의와 연결시킨다. 흑인들은 민권운동을 통해서 얻은 주요한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보수적인 행정부하에서 잃으면서, 흑백간의 불평등은 1970년대 이래로 증가했다고 보고있다.

미국에서 인종간 갈등은 오랜 역사적 뿌리를 갖고 있어서 미국의 역사를 인종관계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역사에서 인종이란 “사회관계를 조직하는 근본원칙”인 것이다.<sup>69)</sup> 미국 사회에서 흑백관계의 역사는 사회적인 관계와 타 민족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규정한 주된 요인이었다.

흑인들은 비자발적인 노예로써 미국에 들어왔다는 면에서 다른 소수민족들과 다르다. 노예제도는 흑인들을 미국의 인종계층구조에서 특수한 집단으로 만들고 있을 정도로 흑인들의 생활에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sup>70)</sup> 흑인노예제도는 흑인들에게 “선택하고 주도권을 행사하고 책임을 지는 거의 모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인종불평등을 초래하였다.<sup>71)</sup> 흑인들이 미국에 들어 온 양식이 다르고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계속 되어서 흑인들의 생활과 문화에 독특한 흔적을 남겼다.

남북전쟁 이후, 노예제도는 철폐되고 백인들은 19세기에 백인들은 흑인들이 자신들의 경제·사회적 이익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분리의 체계를 발달시켰다. 주택, 직업, 교육, 의료제도, 교통수단, 오락 및 종교 등 모든 사회생활에서 흑인들과 백인들을 분리시키기 위해 물리력과 이념이 사용되었다.<sup>72)</sup> 이러한 분리의 상황은 제2차세계대전이 지나서까지 지속되었다.

흑인들은 2차세계대전 지나고 이용자원을 확대하면서 지배집단의 권위에 도전하고 인종주의 스테레오타입을 감소시켜 갈 수 있었다. 특히, 1960년대의 민권운동은 입법, 투표권운동, 시위 등을 통해 기존의 인종을 둘러싼 질서에 도전할 수 있었다. 민권운동가들은 소수민족, 특히 흑인들의 사회적, 정치적 힘을 확대하고자 정치적 수단과 대립전략을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흑인을 비롯한 소수민족들은 분리를 유지해 온 법적 하부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었다. 국가는 민권운동에 대해 사회적, 정치적으로 인종관계를 새로이 규정하는 입법, 사회정책, 프로그램을 만들고 기관을 설치함으로써 대처하였다.<sup>73)</sup>

일부에서는 민권운동의 성공여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면서, 빈민과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사회복지프로그램이 1960년대의 대중시위로 인한 사회가 불안해 지

69) Omi, M., and Winant, H., *Racial formation in the United States: From the 1960s to the 1980s*. New York: Routledge and Kegan Paul, 1986, p. 66.

70) Marger, 앞의 글, 1991.

71) Tidwell, 앞의 글, 1987, p. 449.

72) Marger, 앞의 글, 1991.

73) Omi and Winant, 앞의 글, 1986.

는 것을 막기 위하여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sup>74)</sup> 따라서, 정부의 사회복지프로그램은 “사회질서가 회복된 후에 일반적으로 축소”되었다.<sup>75)</sup> 흑인들의 정치적, 법적 지위가 향상되고 경제적 기회가 증가되었으나 주로 도시의 빈곤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많은 흑인 빈곤층의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sup>76)</sup> 민권입법과 빈곤퇴치프로그램은 중산층 흑인과 빈곤층 흑인의 격차만을 더욱 넓혔다.

법에 의한 분리는 민권입법을 통해 끝이 났지만, 인종간의 분리는 주거지역의 차별의 형태로 지속되었다. 주거에서 차별은 주거의 배열이 모든 다른 사회생활의 영역, 즉 교육, 직업, 공공기관으로부터의 혜택, 교통체계, 민족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 특히, 주거의 분리는 백인들과 소수민족들이 개인의 수준에서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 인종편견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낳았다.<sup>77)</sup>

흑인지역은 보수적인 공화당 행정부가 정치적으로 우위를 점하면서 지난 20여년간 여러 측면에서 오히려 쇠퇴하였다. 무엇보다도 흑인가구의 중간소득은 백인가구의 소득에 비해 1970년 64%에서 1987년 56%로 감소하였다(Marger, 1991). 또한, 흑인의 실업률은 1970년 8.2%에서 1987년 13.0%<sup>78)</sup>로 증가하여, 같은 기간 4.5%에서 5.3%로 증가한 백인의 실업률보다 크게 늘어났다. 특히, 흑인청소년의 실업률은 1987년에 34%에 이를 정도로 높았다.<sup>79)</sup> 흑인들의 실업률이 백인들의 실업률의 두 배에 이를 정도로 높았었으며, 이러한 실업률의 격차는 1980년대에 오히려 증가하였다. 따라서, Gibbs(1988)는 흑인들과 백인들의 불평등이 1960년대 이래로 계속 감소되었다는 것은 일종의 환상이라고 주장한다.<sup>80)</sup> 결국, 도시에 거주하는 흑인들이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어 흑인들에게 깊은 불만을 불러 일으켰고 1960년대 이후 또 다시 도시의 상황은 불안하게 되어 L.A. 폭동으로 발전되었다.

백인의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은 흑인의 분노를 증대시켰고 흑인들의 폭력가능

74) Piven, F. F., and Cloward, R. A., *Regulating the poor: The functions of public welfare*. New York: Random House, 1971.

75) Marger, 앞의 글, 1991, p. 239.

76) 중산층과 근로계층의 흑인들이 도시의 빈민지역에서 교외로 이동하자 빈곤한 흑인들은 지도력, 역할모형, 기본적인 지지체계 및 전통적인 가치관을 모두 잃어버렸다. 가족, 종교, 자기 개선 및 사회적 응집력과 같은 전통적인 가치관들의 중요성이 약해졌다. 그 결과, 도시빈민지역은 “희망의 부재, 소외 그리고 좌절의 느낌”을 반영했다(Gibbs 1988, p. 19).

77) Marger, 앞의 글, 1991.

78) 흑인 남성의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흑인들 사이에 여성가구주인 가구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흑인 가운데 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율은 1960년 22%에서 1970년 28%로, 다시 1988년 43%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Marger, 1991).

79) 같은 해에, 모든 10대의 실업률은 17.4%였다(Gibbs, 1988).

80) Gibbs, J. W., *Young, black, and male in America: An endangered species*. Dover, Mass.: Auburn House Pub. Co., 1988.

성을 심화시켰다. 많은 흑인지도자들은 L.A. 폭동이 경제적 기회와 법체계가 불평등한 역사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한다.<sup>81)</sup> 도시빈민지역의 다수 흑인들은 실업상태에 있거나 대단히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직업차별과 임금차별, 열악한 학교상황, 주거비용의 상승으로 많은 흑인가구들이 빈곤에 빠져있다. 흑인지역의 지도자들은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경찰행동의 형태를 띠었다고 주장한다. 폭동은 20여년에 걸친 도시빈민지역의 문제를 방치해 놓은 결과인 것이다. 따라서, L.A. 폭동은 “수세기에 걸쳐 축적된 유색인종의 좌절, 희망의 부재, 소외에 대한 분노가 폭력적으로 폭발하였던 것이다.”<sup>82)</sup>

한국인 상인들은 백인의 인종차별에 좌절된 흑인들과 직접 교류하였기 때문에 흑인들의 폭력에 희생자가 되었다. L.A. 폭동이 백인에 대한 항거였으나 한국인 사업자들은 백인들 대신에 폭동의 희생자가 되었다. 많은 한국인 상점들은 “우연히 폭발의 현장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sup>83)</sup> 대부분의 한흑갈등은 “그들이 한국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사업이 흑인 지역에 있기 때문에” 발생하였다.<sup>84)</sup>

1992년 L.A. 폭동은 “견딜 수 없는 정치 경제적 질서에 대항한 반란”으로 이해해야만 한다.<sup>85)</sup> 폭동에서 문화적으로 독특한 한국인 사업자들은 흑인지역에서 흑인들의 경제적 자원과 자율성을 박탈한 “보이지 않는 손”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였다. 흑인들에게 자본가 질서의 상징은 대기업의 고층빌딩으로 둘러싸인 도심이 아니라 이웃의 한국인 잡화점이었다.<sup>86)</sup> 따라서, L.A. 폭동에서 흑인 폭도들은 도시빈민지역의 소규모소매상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이 대기업이지만 한국인 소유상점을 공격했다. 한국인들은 빈민층과 대면하기 때문에 폭동의 목표가 되었다. 좌절-공격이론하에서 흑인들이 누가 진정한 적인지 모르기 때문에 또는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흑인들에게 백인들은 너무 강하고 멀리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국인들에게 적대감을 보이고 공격을 하게 된다고 설명될 수 있다. 이렇게, 한흑갈등은 백인과 흑인간의 인종갈등에서 비롯되었다.

인종차별과 그 사회경제적 결과는 흑인과 한국인을 심각한 갈등으로 몰아넣었다. 그러면, 한국인들은 1965년이래 미국에 온 여러 동양인들<sup>87)</sup> 가운데 왜 흑인의 공격 대상으로 선택 되었는가?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다른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81) N.Y. Times, 1992. 9. 13, E7.

82) L.A. Times, 1992. 5. 5, B7.

83) L.A. Times, 1992. 5. 5, B7.

84) Chang 앞의 글, 1990, pp. 163-4.

85) Davis, M., “In L.A., burning all illusions.” *The Nation*, 1992, June 1, p. 746.

86) Davis, 앞의 글, 1992.

87) 1990년 미국 센서스에서 한국인은 중국인, 필리핀인, 일본인, 그리고 인도인에 이어 5번째로 큰 동양인 집단에 불과하다.

## 2) 경제적 이해의 차이

한국인들은 1970년대 이래로 미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민족 가운데 하나이다. 1970년에서 1990년까지, 한국인들의 수는 70,000명에서 거의 800,000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L.A.에서 한인사회의 성장은 더욱 괄목할 만하다. 이 지역에서 한국인들의 수는 1970년 8,800여명에서 1980년 60,600여명으로, 다시 1990년에는 145,400여명으로 증가하였다. 한국인 경제구역의 성장으로 1980년 L.A. 시는 올림픽가를 코리아타운으로 선포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한국인인구의 급속한 성장은 한국인과 타민족집단과의 교류를 증가시켰다. 특히, 한국인들은 대도시지역에 밀집하여 거주하기 때문에 도시의 빈민지역에서 생활하는 흑인들과 교류하고 긴장을 조성할 가능성을 높이게 되었다. 더욱이, 대부분의 흑인과 한국인과의 교류는 상인과 고객 사이의 교류로서 일어나기 때문에 동등하지 않고 공식적이어서 긴장과 갈등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

흑인과 한국인간의 긴장은 특히 경제적 쟁점을 둘러싼 갈등으로 발달해 왔다. 경쟁이론에 따르면, 한국인과 흑인이 일자리 같은 동일한 부족한 경제적 자원을 위해 경쟁하기 때문에 한흑갈등의 가능성은 증가한다. 한국이민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한국인과 흑인주민들과 자원에 대한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일부 흑인주민들은 한국에서 온 이민자들을 일자리, 주택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경쟁자로서 간주하여 긴장을 조성하게 된다.<sup>88)</sup>

한국이민자들은 소규모사업을 하는 강한 경향을 보인다. 즉, 1980년 전체 미국의 노동인구 가운데 7.3%가 소규모사업을 하고 있었던 반면, 한국인들의 13.5%가 소규모사업에 종사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한국인들은 1980년 전체 인구의 0.8%에 불과했지만, 한국인들이 소유한 기업은 전체 기업의 약 2.6%였다.<sup>89)</sup> 또, 1978년 한국인 가구주의 40%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반면, L.A. 카운티의 전체 인구에서는 7.6%에 불과했다.<sup>90)</sup> 더욱이 또 다른 40%의 한국인은 다른 한국인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있어서, L.A. 카운티의 한국인의 80%가 서비스사업 및 소매상에 밀집되어 있었다.<sup>91)</sup> 뿐 만 아니라 한국인 사업체들은 대부분 도시빈민가의

88) Light, I., and Bonacich, E., *Immigrant entrepreneurs: Koreans in Los Angeles 1965-1982*.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8.

89) 소매상에서의 숫자는 더욱 인상적이다. 한국인들은 거의 5%의 소매상을 소유하고 운영하였다. 한국인 사업체들은 소매상과 서비스영역에 밀집해 있었다. 한국인소유기업의 3/4이 소매상과 서비스영역이었다(Light, 1985).

90) Yu, E. Y., "Occupation and Work Patterns of Korean immigrants in Los Angeles." in E. Y. Yu, E. H. Phillips, and E. S. Yang (Eds.), *Koreans in Los Angeles: Prospects and promises*. Los Angeles, CA: Koryo Research Institute, 1982; Chang(1990)은 L.A. 한국인의 약 1/3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91) Chang(1990)은 한국인들이 소매상과 서비스사업 가운데서도 주류소매상과 잡화점에 밀집되어 있다고 밝히고, 전체 한국인 소유 소매상과 서비스업체의 36.9%에서 49%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흑인 및 남미계인 거주지역에 위치해 있었다.<sup>92)</sup> 예를 들어, L.A. 지역의 한국인소유 주류소매상과 잡화점의 60.9%가 도시빈곤지역에 위치해 있었다.<sup>93)</sup> 한국인들은 도시빈민지역의 상점임대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을 취하는 반면, 상당히 높은 신체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다.<sup>94)</sup>

중간자소수민족이론에 따르면, 대부분의 한흑갈등에서 보여 주듯이 한국인들이 소규모사업체를 통해 흑인지역에서 중간자역할을 수행하며 한흑갈등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흑인 고객들은 한국인상점의 상품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불평하면서도, 그들이 상품을 살 수 있는 상점이 한정되어 있어서 한국인상점에서 물건을 살 수 밖에 없어서 한국인상인들과 갈등을 일으킨다. 또한, 한국인사업가들과 흑인사업가들은 흑인지역에서 영업하면서 서로 경쟁하기도 한다. 한국인들과 경쟁하는 흑인사업가들은 한국인상점주인들이 자신들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영업을 하여 자신들을 폐업시키려고 한다고 비난한다. 또한, 흑인들은 한국인사업자들이 백인으로 부터 상점을 구입하면서 흑인들을 고용하지 않기 때문에 흑인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비판한다. 더욱이, 흑인들은 한국인들이 흑인지역에 건물을 구입할 때, 흑인들의 임대료를 올려서 흑인들을 내쫓는다고 비난한다. 흑인들은 “새로 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역에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에 분개한다.”<sup>95)</sup> 흑인들은 영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이 자신들보다 더 잘 살 수 있다는 것에 분개한다. L.A. 지역의 흑인지도자들은 “흑인지역이 동양인에게 문자 그대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한다.<sup>96)</sup> 한국인들은 상점이 있는 흑인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흑인들은 한국인상인들이 외부인 이면서 흑인지역의 자원을 빼내간다고 비난하기도 한다.<sup>97)</sup>

그러나, 한국인들이 단지 자신들의 선택에 의해서만 소규모사업에 종사하는 것은 아니며, 부분적으로는 소규모사업에 종사하도록 강요받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인들은 새로운 이민으로서 미국의 노동시장에 맞는 기술이 부족하고 언어의 장벽 때문에 자신들이 받은 훈련과 기대에 일치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sup>98)</sup> 둘째, 한국인들은 다른 동양계 이민들이나 흑인들처럼 차별에 의해 대기업이

92) Kim, I., *New urban immigrants: The Korean community in New York*.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93) L.A. 지역에서 한국인소유 주류소매상과 잡화점의 32.8%가 흑인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15.4%가 남미계인 지역에 위치해 있다(Chang, 1990). 참고로, 애틀랜타에는 한국인소유사업의 44%가 흑인을 주 고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연구가 있다 (Min, 1990).

94) Jo, 앞의 글, 1992. 대규모소매상들이 1960년대 도시폭동 기간에 상점이 크게 파괴된 이후 도시빈곤지역을 빠져나가고, 한국인들은 이들 대규모소매상들이 영업을 하지 않는 지역에서 저소득층이며 대부분 유색인 고객에게 영업을 한다.

95) Time, 1990. 5. 28, p. 22.

96) Sentinel, 1983. 8. 11.

97) Jo, 앞의 글, 1992.

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주류사회의 일자리를 얻을 수 없었다. 특히, 한국인들은 높은 수준의 교육과 훈련을 받은 상태였다.<sup>99)</sup> 셋째, 한국인들은 체류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본이 적어서 소규모사업에 밀집할 수밖에 없었다.<sup>100)</sup>

### 3) 문화적 차이: 편견과 차별

흑인과 한국인이 서로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 즉 부정적인 인식은 두 집단 간의 긴장과 적대감을 심화시켜서 갈등을 일으켜왔다.<sup>101)</sup> 흑인들은 이미 흑인지역에서 소규모상점을 소유하고 있던 유태인, 이탈리아인과 같은 백인이민들과의 경험이 있으며, 그들을 일종의 약탈자로 생각했고, 한국인들이 이전의 백인들과 같은 약탈자라고 보고 있다.<sup>102)</sup>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편견과 차별도 긴장과 적대감을 심화시키는데, 한국인들은 다른 동양인들처럼 출신국가에서부터 흑인에 대한 경멸을 보이고 인종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다. 많은 한국인들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서구문화가 밀려들어오고 그 과정에서 서구문화가 갖고 있던 백색에 대한 선호를 그대로 받아들여 흑인들에 대한 인종편견을 발달시켰던 것으로 보인다.<sup>103)</sup> 미국에 온 한국인들은 언론을 통해 흑인들의 부정적인 모습을 주로 보게 되고 자신의 편견을 강화시키게 된다. 언론은 “젊은 흑인들을 폭력적이라거나 마약판매상”으로 묘사한다.<sup>104)</sup>

문화적 차이와 언어의 장벽은 두 집단간의 오해와 편견을 증대시킨다. 흑인들은 한국인들의 문화적인 태도 또는 그들의 서투른 영어를 거만하다고 판단한다. 대부분의 흑인들은 한국인 상인들이 자신들을 고객으로서 존중하지 않는다고 비난한다.<sup>105)</sup> 반면에, 한국인들은 상점을 공식적으로 운영하도록 문화적으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흑인고객들 뿐 아니라 한국인고객들과도 육체적 접촉이나 사회적 상호작용을 최소화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인들은 “상냥한 것을 진지하지 못하다는 것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공식적이 되고 무뚝뚝하게 된다는 것이다.<sup>106)</sup> 한국인 상인들이 공식적인 태도로 무뚝뚝하게 대하는 것을 흑인들은 자신들에 대한 적대감, 무시, 인종편견의 표현이라고 여긴다. 특히, 흑인들은 대부분이 농촌인 남부지역출

98) Light, I., "Immigrant entrepreneurs in America: Koreans in Los Angeles." in N. Glazer (Ed.), *Clamor at the Gates: The new American immigration*. San Francisco, CA: Institute for Contemporary Studies, 1985.

99) Kang, C., "Koreans have a reason not to smile." *New York Times*, 1990, Sept. 8, p. Y15.

100) I. Kim, 앞의 글, 1981.

101) Cheng and Espiritu, 앞의 글, 1989.

102) Jo, 앞의 글, 1992.

103) U.S. News & World Report, 1992. 5. 18, p. 34.

104) Hutchinson, 앞의 글, 1991, p. 554.

105) Time, 1990. 5. 28, p. 22; Hutchinson, 앞의 글, 1991.

106) Kang, 앞의 글, 1990. \*



신으로 비공식적인 친밀한 관계에 익숙해 있기 때문이다.<sup>107)</sup>

한국인 상인들도 흑인들에 대해 비슷한 불평을 하면서 두 집단간의 간격은 더욱 커지게 된다. 한국인들은 흑인청년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등 전혀 존중할 줄 모른다는 것이다. 반면에 한국인 상인들은 본국에서 “다른 대접을 받는데 익숙해 있다”.<sup>108)</sup> 한국인들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존중해서 흑인청년들이 버릇이 없다고 생각하고 농담을 던지지 않는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편견과 부정적인 스테레오타입을 강화시켜서, 많은 흑인들은 한국인 상인들이 돈만 아는 수전노라고 보고 한국인들은 흑인을 범죄자 또는 도둑으로 본다. 흑인들은 물건을 살 때 한국인상인들이 감시를 한다고 불평하고 한국인들은 흑인들이 물건을 훔쳐간다고 걱정한다.<sup>109)</sup>

편견이 강해지면서 근거 없는 소문도 생기고, 이에 따라 편견과 적대감을 강화시킨다. 예를 들어, 많은 흑인들은 한국인 상인들이 은행, 한국정부 또는 미국정부로부터 창업자금으로 불공평한 혜택을 받는다고 믿는다. 반면에 흑인들은 어디에서도 용자를 얻을 수 없다.<sup>110)</sup> 흑인들은 다수의 한국인들이 한국에서 가져온 저금이나, 친척, 친구로부터 빌린 돈이나 계로 모은 돈으로 상점을 구입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sup>111)</sup>

## IV. 결 론

심리학적 이론, 경쟁이론, 중간자소수민족이론 및 민족경제구역이론은 모두 한흑갈등을 설명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이 연구는 한흑갈등을 미국의 사회·경제·역사적 상황에서 탐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인종은 흑백갈등의 오랜 역사에 뿌리를 두고 한흑갈등의 근본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보았다. 흑인들의 한국인에 대한 적대감은 바로 자신들의 노예사, 인종차별의 역사, 그리고 백인들에 대한 적대감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흑갈등은 바로 백인들의 흑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의 직접적 결과이다. 흑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인들은 자신들을 노예로 삼고, 차별하고, 탈취했던 백인약탈자를 단지 대신하는 사람들일 따름이다. 또한, 흑인들은 백인의 인종차별로 좌절감을 느끼고 있으나, 진정한 적이 누구인지

107) Hutchinson, 앞의 글, 1991.

108) Time, 1990. 5. 28, p. 22.

109) Hutchinson, 앞의 글, 1991.

110) Time, 1990. 5. 28, p. 22.

111) Light & Bonacich, 앞의 글, 1988; I. Kim, 앞의 글, 1981; Cheng and Espiritu, 앞의 글, 1989.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백인들은 너무 강력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흑인들은 다른 소수민족에게 적대감과 공격성을 보였다.

왜 한국인들이 선택되었는가? 첫째, 경제적 이해관계의 차이가 두 집단을 긴장과 갈등으로 이끌었다. 한국인과 흑인과의 접촉이 증가하고 경기가 침체하면서 경쟁을 증가시켰다. 또, 한국인들은 백인엘리트와 흑인대중 사이에서 소규모상인으로서 대기업의 상품을 빈곤층 흑인에게 판매하고, 이러한 중간자로서의 역할이 두 집단간의 긴장을 악화시켰다. 도시빈민지역에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새로운 이민이 증가하면서 한흑갈등의 경우처럼 민족간 긴장과 갈등이 심화되었다.

둘째, 문화적 차이와 그에 따른 편견이다. 편견이 집단간 갈등의 원인인지 또는 결과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편견이 집단갈등을 악화시킨다는 것은 분명하다. 한흑갈등은 두 집단의 문화적·경제적 차이에서 나온 편견으로 악화되었다. 언어, 가치관, 관습의 차이는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극단적으로 상승시켰다.

이미 두 집단간에 축적된 긴장과 갈등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두 집단의 지도층의 차이가 긴장과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인사회와 흑인사회는 경제적 계급과 문화의 차이로 서로 다른 유형의 지도층을 발달시켜왔다. 흑인지역의 지도층은 정치 지향적인 반면에 한국인지역의 지도층은 경제 지향적인 것이다.

한흑갈등을 개선하는 첫 번째 노력은 갈등의 원인을 이해하는 일이다. 본 연구는 갈등의 원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이었다. 이러한 이해 위에, 갈등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고안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두 지역사회의 사회사업가는 두 집단의 화해를 위해 일하는 주된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이다. 물론, 경제구조의 변화나 인종차별의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는 사회사업가에 의해서나 다른 어떤 전문가에 의해서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사업가는 한흑갈등이 있게 한 구조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비교적 구체적인 수준에서 사회사업가는 한국인과 흑인의 교류가 공식적이고 불평등한 교류이기보다는 비공식적이고 평등하고 협력적인 교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회사업가는 한국인과 흑인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편견을 줄이는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시행함으로써 두 집단간의 긴장과 갈등을 완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